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②

마음의 동요 그치는 힘

앞에서 '사띠(sati)'의 기본적인 의미를 '잊지 않기'로 풀 수 있는 근거로 〈법구경〉의 게송만을 제시했지만, '사띠'를 '잊지 않기'로 풀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경전의 내용은 한두 쪽만으로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잊지 않기'가 사띠의 기초적인 의미라고 해서, 이 풀이만을 가지고 사띠의 전모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잊지 않기'가 사띠에 내재된 하나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해도, 이 의미는 공부하는 이들의 마음가짐, 자세, 일상의 마음 살림 꾸리기를 위한 대의에 속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차별되는 불교적인 명상의 면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잊지 않기'는 닦음의 출발점에 서게 해주는 소중한 영역이지만, 닦음의 길로 곧장 나서게 하는 '추진력'의 의미가 그 속에 온전하게 내재되어 있지는 않다.

늘 잊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의 태도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마음상태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역동성으로 나타나는 데 필요한 그 어떤 '힘' 개념, 사띠의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힘 개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주의력을 불러일으켜주는 마음짓'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마음짓'이란 우리말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몸짓'에 대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필자가 시험 삼아 써보았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작동 지점을 의미한다. '마음을 일깨움'이라는 표현을 써도 통하는 말이 될 것이다. 흔히 불교 밖의 사유체계에서 '깨어 있음'이란 말로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뜻이다. 사띠를 '마음지킴' '마음챙김'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들은 이 의미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주의력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병에 걸렸다. 그렇다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테라가타(長老偈)' 게송 제30에 나오는 이 글귀는, 몸에 병이 들어 마음이 나태해지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다잡는 장면이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상대방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고 충고한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는 내용도 보인다(〈숫타니파타〉 게송973). 여기에서 주의력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에 쓰이는 말에 모두 '사띠'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띠'의 두 번째 의미를 '주의력 불러일으키기'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해당하는 용례도 '잊지 않기'로 옮겨야할 때만큼이나 〈니까야〉와 〈아함경〉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매우 많다.

'사띠'의 두 번째 의미를 '주의력 불러일으키기'로 풀이하면, 불교 명상이 필요한 지점이 자연스레 등장한다. 곧 '잊지 않기'가 계율정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력 불러일으키기'는 마음과 감관의 대상이 접촉하는 바로 그곳에서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경전의 글귀처럼, 몸이 아픔을 조건으로 마음도 덩달아 아프게 되는 그 지점, 타인의 꾸지람으로 인해 감추고 싶은 자신의 상처 그곳이 드러나게 되어 불쾌함과 분노가 발생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띠'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띠의 두 번째 의미에는 감각기관에 접촉되는 대상의 '인지', 그 대상이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하는 '관찰'의 도움이 제기된다. 더불어 동요된 마음상태를 그치기 위해 주의력을 작동시켜 '몰입/집중'의 힘도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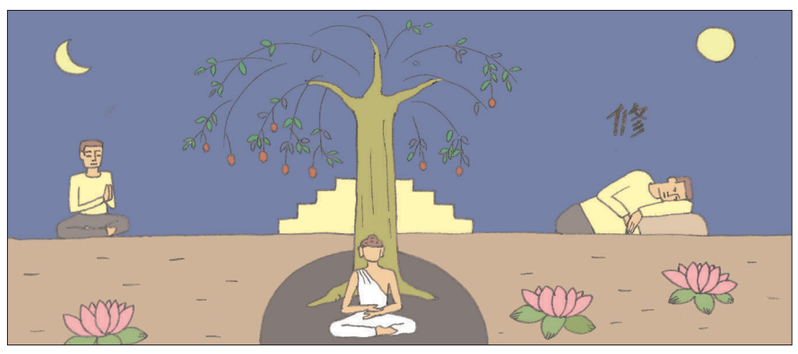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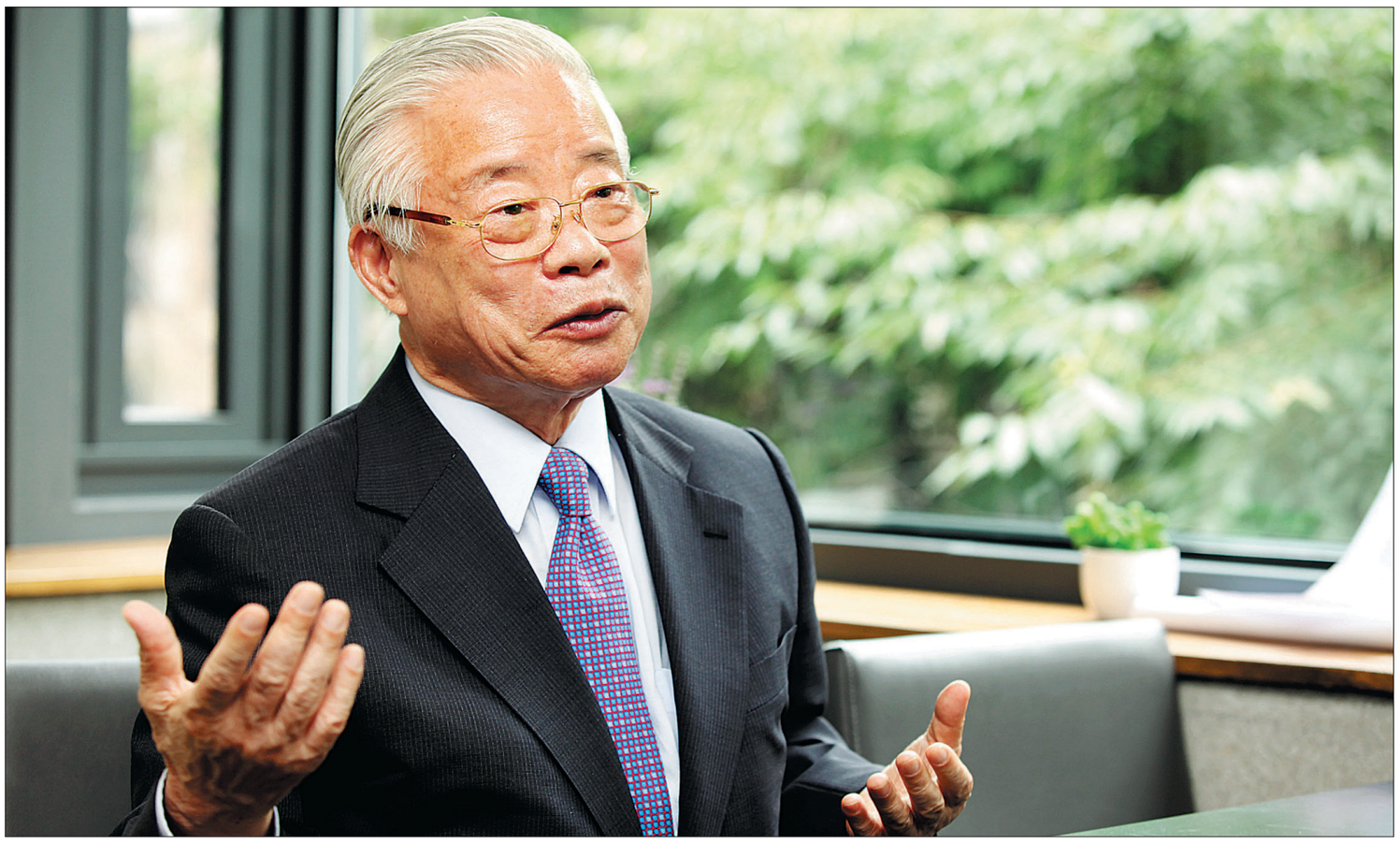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그침/몰입' 유형의 명상(사마타)과 '살펴봄/이해'(위빠사나) 유형의 명상과의 통로가 열리는 지점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수많은 불사 일궈낸 시대 力士…



엄상호 이사장은… 1941년 만주에서 태어난 뒤 경북 의성에서 성장하며 선친과 함께 건영그룹을 일궜다. 현재 건영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며 프라임데칼 경영고문, 대인농산 회장, 영월엄씨 종친회장으로 있다. 군불교진흥회장을 맡아 6년간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중앙신도회 고문 등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불교인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리더에게 聽하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1982년 성철 스님 통일법문 듣고 감화
"국민에 꿈 심어줘야 통일된다" 당부
성철 수행처 순례중 통일불사 발심
3월부터 엄홍길씨와 통일 산행 진행

엄상호 이사장(76)은 한때 재계 30위 안에 들었던 건영그룹 회장이었다. 그룹이 해체되는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이 불교 수행을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이다. 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다. 7월 1일 그를 만나 통일의 비전에 대해 들었다.

진행=김주일 기자, 사진 · 정리=노덕현 기자

Q: 사업 하시던 분이 통일운동을 하고 계시니 보통의 인연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일운동을 하시게 됐는지요.

통일 운동을 설명하자면 먼저 성철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해야 한다. 성철 스님을 처음 뵌 것은 1982년 전국신도회 부회장일 때 해인사로 신년하례를 가면서였다. 사업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성철 스님의 법문은 마음 챙김에 큰 도움이 됐다. 이후로 2009년 불교인재원을 맡게 됐다.

2013년부터 2년간 성철 스님 수행처를 순례하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수행도량 순례단'을 이끌게 됐다. 불자들과 평소 성철 스님을 흠모했던 이들을 모아 성철 스님의 생가부터 해인사, 개운암 등 인연처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여섯 번째로 은해사 운부암을 가게 됐다. 운부암에 가기 전 새벽기도 후 잠깐 꿈을 꾸었는데 성철 스님이 나타나셨다. 특유의 빠르고도 부정확한 발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해. 통일 기도를 해'라고 일갈하셨다.

Q: 꿈에까지 성철 스님이 나와 말씀하실 정도면 평소에도 이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습니다.

평소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나 싶다. 꿈에서 깨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성철 스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무런 목적 없이 당신의 거처를 찾아다니는 대중들을 보고 무엇이라 하셨을까. 호통을 치지 않으셨을까."

'통일'이라는 화두가 생긴 것이었다. 성철 스님은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 전에는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 와 닿지는 않았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화두가 생기니 이 말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졌다. 힘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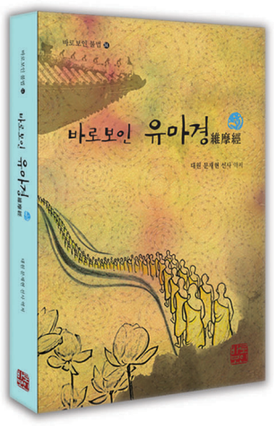
여러 큰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도 성철 스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었다. 성철 스님이 법정 스님과 생전 나눈 대화였다.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에게 통일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 성철 스님은 "국민에 꿈을 심어줘야 통일이 된다"고 하셨다.

Q: 꿈이라…한국사회에서는 이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이 삶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난제들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결국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매사에 남북분단 상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활력 넘치는 발전을 성큼성큼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근래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일자리도 문제라고 한다. 사실상 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는 통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국민들 마음속에 통일은 언젠가는 이뤄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지금은 아닌듯하다. 남이나 북이나 실제로 통일로 가는 길에는 단 한발 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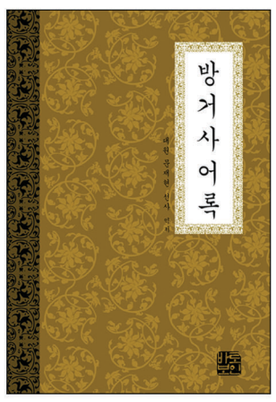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moonzenpress.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토피의 자가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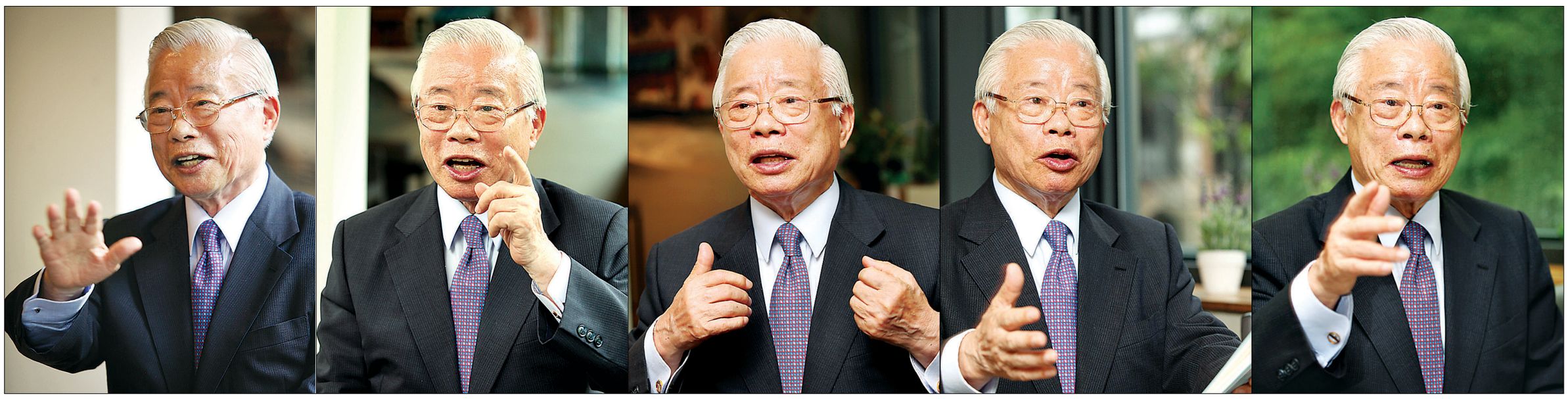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불사에 있다”



Q: 국민들에게 ‘통일’이란 꿈을 어떻게 심어 줄 수 있을까요.

한사람의 꿈은 그냥 꿈이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한다. 모두가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통일 시켜줄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 해야 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

남북 관계를 보면 북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결국 남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이 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통일이 안되면 쪽박’이란 말이다.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겪고 있어 실감을 못하지만 분단 상황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결국 이 부분이 한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Q: 엄상호 이사장님은 불자로서 통일운동을 불교계 내에서 하고 계십니다. 불교계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반국민들에게 통일의지를 북 돋는 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3·1운동 당시에도 보면 독립운동을 한 이들 중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었다.

불자들이 먼저 이 절, 저 절 다니며 통일기도를 한다고 하면 먼저 불교계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다른 종교계에서도 동참하고, 이러다 보면 국민들에게 통일의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교인재원이라는 단체에서 통일운동을 출발해 점차 불교의 굴레를 벗어나니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첫 사업이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산행’이다. 엄홍길 대장과는 종친회로 인연이 있어 특별히 요청을 했다. 3월부터 엄홍길 대장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도봉산 망월사를 시작으로 6월까지 4회동안 진행했다. 처음 120명으로 시작해 현재 180명이 참여했다. 산행 행사에는 불교의식이 없고,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강연이 함께 진행된다.

Q: 종친회 차원에서도 많은 저명인사들과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20명이 매달 1만원씩 모아 5년간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하기로 하셨지요?

조선일보에서 통일나눔펀드를 보고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영보 전 해군참모, 엄호성 전 국회의원, 엄병길 전 강원지사, 엄기영 전 MBC사장 등이 엄씨대종회 임원진이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대종회에서 통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사업을 찾던 중 통일과나눔 재단을 알게 됐고 생각이 맞아 모두 함께 참여를 결정했다. 크지 않은 액수지만 동참하면 좋으리라 생각해 다른 이들을 설득했다.

Q: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저자인 신창민 박사와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 출간을 후원하시기도 했다고요.

통일운동을 하고자 하니 일반 인사들도 방북을 해 매스컴에 소개되고 자신의 활동을 어필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15년 6월이었는데 6·15공동선언 15주년 좌담회가 열렸고, 한겨레에서 이것이 크게 보도됐다. 이 중에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 글이 실려 있었다.

한우리연구원 이사장이기도 한 신창민 박사는 불심이 깊었다. 한우리연구원 이름도 법정 스님이 지어주신 것이었다. 이것이야 말로 부처님이 연결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이후에 만나 의기투합하게 됐다.

Q: 통일운동 외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도 대단하신 듯합니다. 평소의 신행활동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대대로 불교집안인데, 고려시대 창건된 의성 대곡사와 조부 때부터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신심은 불교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할 때는 사업차 방문해서도

통도사·구룡사 등 불사 일궈
1997년 건설사 도산, 그룹 해체
불교공부로 마음 챙기고 나눔활동
“통일불사 국민운동으로 키울 터”



통일 전문가 신창민 교수가 지은 〈통일은 대박이다〉〈통일대박은 축복이다〉의 책 표지. 엄상호 이사장이 후원하고 있다.

지역 이름 있는 스님을 찾아가 법을 청해 들었다. 기업이 잘 될 때 불교를 위해 무엇인가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한다. 그러다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를 하며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통도사 월하 스님과 선친의 인연이 깊었는데 그 인연으로 불사에도 참여했다. 서울 양재동 구룡사 불사는 원력이 있으면 이뤄진다는 것을 느낀 계기였다. 어느 날 집에서 나오는데 ‘통도사 서울포교당’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퇴근하며 법당을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없었다. 5일 만에 찾았는데 천막법당이었다. 건영건설이 불사를 맡고 정우 스님과 함께 불사를 진행하게 됐다. 현대식 도심포교당 건물에 대한 반응은 좋았다. 불사금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사람의 원력으로 이뤄내게 됐다. 앞서 말한 꿈, 원력이 있으면 이뤄진다는 것을 느낀 게 바로 불교계 불사를 하면서 부터다.

Q: 건영건설 얘기가 나왔으니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1980년대 신도시 아파트 건설로 유명한 건영건설 회장이셨고,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영그룹 총수셨는데 1997년 갑자기 흑자 도산했습니다. 충격이 크셨을 듯 한데요.

건설사 연대보증을 하면서 보증을 선 건설사가 도산이 나며 그룹이 해체됐다. 당시에 국내 최초로 중국에도 진출한 상태였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당시에는 한 지역의 공사를 모두 수주했으니 위기만 넘겼으면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룹이 해체됐으니 아픔이야 없었겠나. 이 아픔을 불교공부로 이겨냈다. 사실 ‘돈’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무기다. 이 무기가 좋은데 쓰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며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안 좋게 생을 마감한 이들이 많다. 처음 전국신도회에서 성철 스님을 만난 뒤 이후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3000배를 했고, 매달 1만 배 서원을 세웠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33배를 하고 있는데, 회사 도산 이후 건강과 신심이 더 좋아졌다.

함께 사업했던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사업이 잘 되던 안 되던 여러 문제가 터지면서다. 나도 계속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불교공부를 못하고 돈에 끄달려 살다 이미 저세상에 갔을 테니 불교와의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도’의 가치를 알고 참선하면서 ‘건영재단’ 이름도 ‘중도재단’으로 바꾸고, 남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은 기부하니 마음의 짐도 덜고 건강해진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통일운동이다. 인생의 회향을 통일불사에 진력하겠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Q: 함께 사업을 하던 다른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사찰에 다니면서 불심을 키웠지만 마음 속 한편에서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항상 떠나질 않았다. 열심히 수행은 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환생도 믿음이 가지 않았다. 언젠가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다. 기도를 하고 명상에 잠겨있었는데, 멀리 깜깜한 하늘에서 한 불덩어리가 날아와 가슴을 세게 치고 사라졌다. 그 순간 딱 이 생각이 들었다.

“아, 나라는 것이 이 우주 안에 있구나. 나라는 존재도 인연에 따라 잠시 모인 것이구나. 내 육신이 흩어진다고 하여도 이 우주 안에 있으니 인연법에 따라 또 세상에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쌓는데 주저함이 없어졌다.

Q: 통일운동 외에는 하고 싶은 일이 없으십니까? 또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여러 가지 작은 사업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키우고 싶다. 가장 먼저 사찰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찰이 통일운동에 나섰으면 한다. 현재 맡고 있는 불교인재원도 잘 가꿔 불교가 젊은 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엄상호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적지않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그럴때마다 마음 내려 놓는법을 배웠다는 엄 이사장.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의 통일불사 원력은 성철 스님을 만나 처음 발심한 30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